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내일
2018. 12
Vol. 524



CONTENTS

2018. 12 Vol. 524



08

12

SECTION 1 미래로 가는 길

- 04 내일을 위한 청년정책
- 08 가재 미래로
- 12 청년 서포터

SECTION 2 목표를 얻는 길

- 16 능력개발 길잡이
- 20 미래 유망 직종
- 24 명인을 만나다



20

SECTION 3 변화가 시작되는 길

- 28 Work & Life Balance
- 32 청춘불패
- 36 상생을 꿈꾸다



28



40



48

SECTION 4 꿈을 함께 하는 길

- 40 함께 하는 세상
- 44 나누고 더하면 행복
- 48 드림 프로젝트

SECTION 5 희망을 노래하는 길

- 52 노사문화 우수 기업
- 56 쉽게 풀어 보는 산업안전
- 58 노동법 길잡이
- 60 모엘 뉴스
- 66 알기 쉬운 정책
- 68 내일 카툰



52

SECTION 6 여유를 찾는 길

- 70 이달의 청백리
- 72 건강 100세
- 74 한국의 맛
- 76 상식사전
- 78 길 위의 사색
- 82 모엘 마당



78

고용노동부 소식지 12월호 <내일>
 통권 제524호
 등록번호 강남 라00389
 발행일 2018년 12월 3일
 발행인 이재갑
 발행처 고용노동부
 편집위원장 이현수(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기획·편집·디자인 하나로에드컴

청년들을 위한 알짜배기 취업정보 총망라했다

온라인 청년센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청년들이 알 수 있는 직업과 직종, 취업에 대한 정보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청년들의 막막한 심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온라인 청년센터를 열었습니다.

글 노혜진

필요한 정보를 모아놓은 온라인 청년센터

현대 사회는 엄청난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바다에서 정작 필요한 정보는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는 어디인지, 지금 이력서를 넣는 회사는 믿을 만한 것인지, 오히려 정보가 많아지면서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 참여단(고용노동부 운영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에서 청년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디자인단(정책 수요-공급자가 함께 정책을 개선하는 정책 모형)과 함께 세부 서비스를 설계하였고, 지난 10월 18일 청년정책·공간 정보 및 통합 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인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개소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무료 공간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알고 싶어 하고 알아두면 좋을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청년 워크넷과 연계하여 만들어진 각각의 섹션은 청년정책, 청년공간, 청년일자리, 직업·진로, 채용 행사·뉴스, 취업스토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청년 정책

정책검색, 정책비교,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실시간 청년정책콘 텐츠와 청년친화강소기업, 우리 학교 취업지원실 등 청년들에 게 필요한 정책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정책검색에서는 일자리· 주거·금융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147개의 청년지원정책을 찾아 볼 수 있고, 정책비교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VS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처럼 유사한 정책들 간의 신청 자격과 혜택 등 핵 심 정보를 비교하였습니다. 청년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을 지원 정책과 혜택을 재미있는 카드 뉴스로 볼 수 있는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도 참고하면 좋을 코너입니다.

청년 공간

청년공간에서는 청년들의 개인 학습공간부터 스터디 공간까지 전국 120개의 공간 정보를 지역, 공간 유형, 부대시설별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별로 이용시간, 규모,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 램에 대한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일자리에서는 13,000여 개에 달하는 채용정보를 비교하여 볼 수 있으며 공채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을 따로 찾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업·진로

워크넷과 연계하여 궁금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직 업정보에서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으로 분류별, 지식별, 업무수 행능력별 등으로 원하고자 하는 직종명과 조건별로 직업 검색 이 가능합니다. 대학전공별 진로가이드, 직업심리검사, 학과정 보, 진로상담, 카드로 보는 직업정보 등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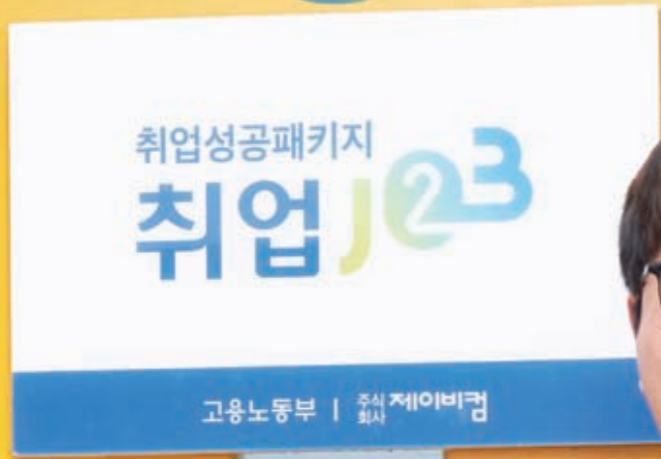
채용행사· 뉴스

지역별 채용행사, 채용박람회, 공모전의 소식을 한데 모았으며, 취업스토리에서는 2018 채용 트렌드와 취업가이드, 그림으로 보는 취업 동향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어떤가요? 청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청년센터. 현재는 청년워크넷과 연계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온라인 청년센터를 별 도 사이트로 독립시켜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고 합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 필요한 혜택 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F106



취업 알선은 구직자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

제이비컴 김태훈 상담사

복지란 무엇이며 나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깊게 생각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찾게 되었고, 직업상담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 우수 사례 공유 컨퍼런스 우수상 수상자 김태훈 상담사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보람 있는 복지를 꿈꿨던 청년

김태훈 상담사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필요한 곳에 올바른 복지를 통해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보람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그는 우연히 제이비컴 신익수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직업복지’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겼던 그는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궁극적인 복지의 한 방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서 제이비컴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이비컴에 입사하여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업패) 전문 상담인으로 만 3년째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김태훈 상담사에게 취성패의 장점을 물어보니 '구직자에게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취성패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할 때와는 달리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김태훈 상담사는 취성패가 이러한 구직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취업 전부터 취업 이후까지 종합 케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험 없는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결국은 찾아 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저는 구직자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주고 싶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구인처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기업에는 청년을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고, 근무환경, 회사규모 등을 사진으로 찍어 구직자들에게 직접 보여 주죠.”



더 좋은 상담사로 거듭나게 한 구직자의 사례

김태훈 상담사가 이처럼 시간을 할애하여 기업 방문까지 추진하게 된 데에는 한 구직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 직업상담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취업을 알선해 주었던 구직자였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저도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정보만을 믿고 취업을 알선했는데, 알고 보니 업체 정보가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거였어요. 면접 볼 때와는 다르게 급여 수준도 근무환경도, 회사 복지도 좋지 않았죠. 이 구직자는 제가 열심히 상담해 준 것이 고마웠기에 힘들었지만 그 회사를 계속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선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이 일을 계기로 직업상담사가 얼마나 책임 있는 직업인지, 그리고 자신이 제시하는 취업 알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김태훈 상담사. 그는 그 이후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며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제이비컴의 경영이념은 '국가와 사회에 봉사'입니다. 김태훈 상담사는 이 사훈에 걸맞게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공헌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펼쳐 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들이 많아요. 지금은 취성패를 전담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취업전문기업으로 구직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구직자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갈 때 보람을 느끼는 김태훈 상담사. 자신도 한때 길을 찾지 못해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기에 구직자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는, 앞으로도 구직자들과 밝은 내일을 열어갈 예정입니다. 그의 노력이 구직자들에게 닿아 취업의 길까지 모두 잘 연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UR VISION: FIRST IN MIND - FIRST IN CHOICE®

Our vision is to become and remain First in Mind
 First in Choice® for our customers,
 and other key stakeholders.
 First means being a leader:
 the one link of first
 as your partner
 as gets + individuals
 in ex



FIRST IN M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크게
도약하는 기업



용인의 한적한 곳에 세워진 CSK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하여 직원 수 500명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이곳은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청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CSK의 이야기를 만나 보시죠.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1997년 한·일·독의 합작으로 세워진 벤처 기업

CSK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일본, 독일의 해외 합작 법인으로 설립된 CSK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를 개발하여 제조하는 회사로 출발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민감한 반도체 물질이 장비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을 돕는 PDS를 자체 개발하고, 2007년 차세대 친환경 연구소 설립을 바탕으로 현재 20여 개의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케팅부 이예지 사원은 CSK 제품의 특징을 '공정별 맞춤형 제공 및 빠른 서비스 대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저희의 고객인데요, 저희 제품은 타 경쟁사에 비해 사이즈가 콤팩트하고 공정별로 각각 다른 제품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제품별 제품 매니저와 엔지니어 팀이 정해져 있어 서비스도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응을 위해 타당성, 이천, 평택, 화성, 청주에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스웨덴 기업 Atlas Copco 그룹의 가족이 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었죠.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젊은 기업

현재 CSK 직원들의 평균 연령대는 약 33~35세입니다. 인사총무 팀 조진모 차장은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해 가는 분위기'를 회사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학연, 지연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기업 전반에 깔려 있는 문화 자체가 수평적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죠.”

신입사원들은 분기마다 매니저와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니저들은 이러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과 충고를 해 주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적성이 다른 직무에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이 상담을 통해 다른 직무로 옮기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죠. 특히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전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CSK는 좋은 인재가 영입되고 회사에 계속 남아 있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Atlas Copco의 가족이 되면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어요. 이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내에 8개의 영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수준에 맞는 반에 편성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집이 먼 직원들을 위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기숙사를 운영하고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야근을 없앴습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보육비도 지원합니다.



CSK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진모 차장에게 CSK의 향후 계획을 물어보니 Atlas Copco의 가족이 된 만큼 글로벌 그룹에 편입된 만큼 반도체 스크러버의 대표 브랜드로 세계를 상대로 이름을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Atlas Copco의 그룹사 중 에드워드 코리아처럼 같은 분야 회사와 협업하여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요, 신기술이 들어간 새 제품의 출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CSK의 사람들은 21년이 되었지만 이제 시작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100년을 이어갈 기업이기 때문에 20여 년의 세월은 이제 막 청년이 된 단계라는 것이죠. CSK는 좋은 인재를 영입하여 회사와 함께 발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싶은 인재를 환영한다고 합니다.



미래 산업의 속도전에서 선두를 점하라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시작 단계이기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현장에서 활약하는 고졸인력을 보면 이 사업 역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미래를 이룰 위대한 첫걸음이기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글 강속희

산업계 변화에 대응할 고졸인력 양성 계획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졸인력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미래유망분야로 선회해 더 많은 고졸인력들을 미래 산업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만든다면, 더 큰 변화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성화고 교육과정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융합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미래유망분야 관련 학과를 선정해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고졸인력을 키워 낼 예정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사업을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특성화고 및 훈련기관의 공동육성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8개 학과로 개편 예정

이 사업을 통해 총 8개 학과를 미래유망분야로 개편할 예정인데요, 선정된 학교들은 2020년부터 미래유망분야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들에 교내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주고, 사업관리비도 지원하며, 교육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성화고 교사의 연수를 지원하고, 특성화고와 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중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인재양성 계획의 적합도, 고용 인프라와 연계 정도 등을 모두 감안해 이미 평가를 마쳤고요, 한 학교당 최대 2개 학과까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와 학과〉

1. 서울문화고등학교 IoT(사물인터넷)과
2.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스마트설비과
3. 서울공업고등학교 바이오화공과
4.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메이커창작과
5.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컴퓨터특허과
6. 삼일공업고등학교 사물인터넷과
7.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빅데이터정보과
8.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스마트제어과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서 선두를 기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 미래 산업이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에 정부가 생각한 방식은 현장 투입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고졸 인력을 활용하는 것과, 이를 학교에서부터 교육하고 필요한 부분은 외부 훈련기관에서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자연스럽게 안착하는 것이고요. 이제 미래는 속도전입니다.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그 속도전에서 우리나라가 선두를 점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방과후 및 방학 중 훈련기관 후방 지원

선정된 학교와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훈련기관도 선정했는데요, 훈련기관은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 전문강사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미래유망분야에서 현장인력 부족을 겪는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훈련 과정에 협약기업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학교를 후방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들은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후나 방학을 활용해 재학생들을 교육할 예정이지요.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금융과 기술의 결합 핀테크

페이플 김현철 대표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핀테크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핀테크란 사전적으로 파이낸스+테크놀로지의 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온라인 결제, 모바일 뱅킹 등이 모두 핀테크 기술 중의 하나지요.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비대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핀테크

온라인 계좌 결제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 기업인 페이플 김현철 대표에게 핀테크의 정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기존 금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접하기가 불편했죠.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구요. 핀테크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파생된 것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송금, 결제 등의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 소액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을 모두 핀테크로 부를 수 있죠.”

김현철 대표의 말처럼 핀테크는 정해진 영역이 아닌 금융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과 결합된 모든 기술을 핀테크로 볼 수 있죠.



돈이 오가는 거래, 가장 중요한 건 보안

페이플에서 개발한 온라인 계좌 결제 서비스는 기존의 불편한 점을 많이 해소한 프로그램입니다.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나오는 인증 번호를 ARS에 입력해 주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프로그램 설치 같은 불편한 과정을 모두 걷어 내고 싶었어요. 현금 거래의 장점을 살리고,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싶었죠.”

빠르게 만들어졌지만 페이플은 기본 보안 서비스를 철저히 만들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고, 처음 인증부터 휴대폰 소유주와 계좌 예금주가 같지 않으면 인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제 단계마다 새로운 키를 생성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방어하고 있죠.

“현재 계좌 등록 간편 결제, 계좌 정기 결제,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위한 링크 결제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영역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기에 온라인 결제도 다양하게 시장이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계좌 결제 서비스 기업 페이플

김현철 대표는 현재 온라인 계좌 결제 서비스 기업인 페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론칭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현재 조금씩 입소문을 타며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죠.

“저는 원래 결제 업종에서 일을 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온라인 결제는 카드 기반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좌 결제를 간편하게 만든다면 기업에도 좋고 이용자들 역시 현금영수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죠.”

직장을 그만둔 김현철 대표는 뜻이 맞는 동료 한 명과 함께 스타트업 기업인 페이플을 설립합니다. 생각해 놓았던 바가 있었기에 개발까지 4~5개월 만에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3월 서비스 론칭 이후 큰 반응이 없다가 8월부터 조금씩 업계에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만든 물건을 소량으로 판매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 결제 시스템을 따로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링크를 걸어서 가볍게 결제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의 버튼 클릭 하나로 결제가 완성되는 세상

김현철 대표는 아직도 온라인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회원가입과 설치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죠. 소비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온라인 결제 쪽이 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버튼 클릭 하나로 결제가 완성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간편 송금 시스템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더욱 많이 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현철 대표는 기업이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하여 소비자들에게 요구하는 불편함을 걷어 낼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결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대표의 말처럼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세상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계에 대한 애정으로 달려온 30년

SMT 이정원 대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계에 대한 애정으로 꾸준히 일을 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산업의 어떤 부분에도 기계가 필요하기에 우리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9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SMT 이정원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임남진

SMT는 1991년 이정원 대표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창원기능대학 졸업 후 기계 제작에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는데, 직원 한 명 없이 혼자서 시작한 일이 현재 2개의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지금은 진해와 밀양에 각각 SMT 사무실 및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해에는 자동차 부품 사업부를 두고 있고, 밀양에는 기계사업부를 두어 다양한 기계를 맞춤형으로 생산 중입니다.



Q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기계 제작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A 어릴 때부터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기에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계가공과 용접을 숙달시켰고 자격증 덕분에 군 입대 후에도 병기대에서 기계가공 및 용접을 하게 되었죠. 제대 후에는 직장 업무인 기계가공과 공작기계조립을 계속 하면서 기계가공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에 창원기능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직장인 기아기공(주)에서 공작기계를 조립하면서 기능을 익혔고 밤에는 학교에서 폭넓은 교육을 배울 수 있었기에 저는 그 시점에 어느 정도 기계에 대한 실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Q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A 기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기계가공과 조립·용접 등 기능이 받침이 되어 준 덕분에 일찍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유공압을 이용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조립자동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도면 그리기, 설계, 조립 및 납품은 제가 직접 하고 가공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금씩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거래처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중 스프링을 제조하던 대원강업과 인연이 되면서 다양한 기계 제작과 자동차 부품가공 및 조립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원강업과는 협력 회사로 있습니다.

Q 대표님이 생각하는 기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그대로 정직하게 결과물을 뱉어 냅니다. 제가 설계를 해서 만든 기계가 제 역할을 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보면 보람과 긍지가 느껴집니다. 좀 더 좋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 처음 보는 기계가 있으면 확인해 보고 원리를 생각해 보기도 하죠.



Q 현재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진해에 있는 공장에서는 기계제작과 부품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기계를 제작하면서 타이어용 가류기를 개발하였는데 기계 무게 때문에 지반이 약해 무리가 있다는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자동차부품 사업부와는 별개로 맞춤형 기계 제작을 위한 공장이 필요했고,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사업부를 분리하여 진해에는 자동차부품 사업만을 위한 공장을 두고, 밀양에는 다품종 소량 기계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두게 되었지요.

Q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A 일을 하면서 꾸준히 생각을 했던 것이 연구 개발 없이 다른 회사의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 주기만 해서는 회사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만의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제작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우리상품도 만들었고 현재는 화재초기진압용 투척식 소화기를 만들어서 제품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만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Q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요?

A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신기술을 배우고 재충전하기 위해 현재 경상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면서 곧 졸업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내어 회사를 계속 영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저희 직원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며 즐거운 기업

(주)크몽

독특한 서비스를 처음 선보이며 업계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일·생활 균형을 훌륭하게 유지하며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잡플래닛이 공동으로 선정한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 (주)크몽의 이야기입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국내 최초 재능 프리랜서 마켓 (주)크몽
 (주)크몽의 박현호 대표가 창업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발견한 것이 5달러에 재능을 사고파는 이스라엘의 파이버(Fiver)라는 사이트입니다. 이를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프리랜서 시장은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인을 통해 소개로 일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이런 무형의 서비스를 규격화하여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어요.”

(주)크몽은 처음에는 모닝콜, 고양이 산책, 욕 들어주기 등 재미있는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실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거래하게 되었다고 해요.

“디자인, 문서작성, 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들면서 (주)크몽을 창업하고 2014년 경남 진주에서 서울로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죠.”

현재 (주)크몽은 서비스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작년에는 레슨 서비스도 출시하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는 직원들이 성장시킨 회사

(주)크몽의 모토는 'Work Happy(행복하게 일하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좋은 성과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한 박현호 대표는 사세가 커지기 시작한 2016년부터 일·생활 균형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게 기본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출근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도 돌보고, 병원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 끝에 오전 10시 출근으로 바꾸고 했죠.”

현재 (주)크몽은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입니다. 주 35시간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일의 양은 같은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관찮을까 걱정했던 것도 잠시, 업무의 집중도가 훨씬 높아지면서 성공적으로 35시간제가 자리 잡았다고 해요.

“건강하게 잘 먹고 일하자고 생각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컵밥, 라면, 음료수, 빵, 과자 같은 간식은 무제한 제공합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면 크몽캐시 50만 원 지급, 도서구입비 지원, 5년 장기근속자 한달 유급 휴가도 지급해요.”

특히 격주 금요일마다 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연차 사용부터 사소한 물품 구입까지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기 힘든 직원들은 익명 제보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 더욱 커질 직종, 직원들과 함께 나가기

(주)크몽은 현재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크몽의 직원 수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 정도로 발전 속도가 눈부시죠. “저희는 업계 1위 회사예요. 1위 회사가 발전해야 업계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때 더 멋지게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직원들이 재미있게,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현재 (주)크몽은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안마의자와 게임기를 설치하고, 직급을 없애고 닉네임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과 재미를 모두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더욱 업계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INI INTERVIEW

월요일이 없는 회사

CX팀 강신재 CX 매니저



저는 (주)크몽에서 전문가와 의뢰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CX 매니저 루니라고 합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주)크몽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곳으로 오게 된 후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입사 후 3개월 만에 결혼을 하면서 18일의 장기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수평적인 문화 덕에 전혀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늘어난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피트니스 센터에 다녀왔는데, 아침을 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월요일이 두렵지 않아요.

사소한 배려가 마음에 와 닿는 회사

운영팀 방한나 프로젝트 매니저



저는 (주)크몽에서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한나라고 합니다. (주)크몽에 입사한지는 9개월 정도 되었는데, 모두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 좋습니다. 저희 회사는 야근이 없고 화식 역시 거의 없는데, 가끔 있는 화식도 술은 없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대신하고, 화식 참

여는 자율에 맡기는 점도 좋습니다. 특히 비번 위치에 있는 대표가 직접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 좋은 점을 개선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저는 2개월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때 저희 부대표님이 직접 불러서 쉬어야 한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힘든 일도 하나하나 들어주었어요. 일을 위한 부품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회사와 함께 계속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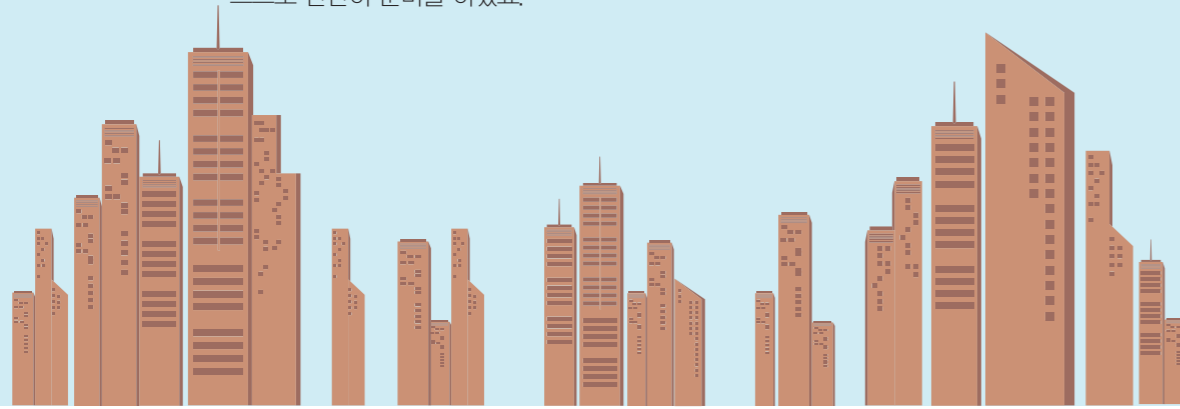
최육경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최근에는 은퇴를 하고 난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최육경 씨 또한 그랬습니다.

자료 제공 노사발전재단

2016년 퇴직 이후 달라진 삶

최육경 씨는 현대자동차에서 30여 년 동안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정년퇴직의 순간은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퇴직 후의 삶이 고민되었던 그는 퇴직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적성과 가능성을 찾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뒤 타일시공, 욕실리모델링 과정을 수료하고 중국어와 일본어 중급과정도 수료했습니다. 또한 사이버대학에도 등록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취득하는 등, 퇴직 후의 삶을 위해 스스로 단단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 성공, 이어진 건강악화

최옥경 씨는 현대자동차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제안지도사 1급, 품질명장 강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설비보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전사 제안개선사례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전사 최우수제안을 받기도 했죠. 이러한 그의 경력 덕분인지 퇴직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은 자신의 회사에 최옥경 씨를 추천해 주었고, 퇴직 후에 바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죠.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기회가 자신에게 왔다는 기쁨에 열심히 일을 했지만 2017년 9월 목 디스크 질환이 발병하면서 다시 잡은 기회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에게 휴식을 권고했고, 그는 이를 받아들여 퇴직하였습니다. 인생 3모작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만나 다시 생각한 진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된 최옥경 씨는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두 번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한 의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018년까지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으면서 취업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쌓는 것에 집중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노사발전재단 울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서 최옥경 씨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만나게 됩니다. 호기심에 듣게 되었던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는 그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현역 시절 받던 높은 연봉을 생각하면서 다른 회사의 비교적 적은 연봉이 눈에 차지 않았고 취업 의지도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몰랐다고 하는데,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통해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며, 자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전 의식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통해 단단함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의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튼튼한 신중년이 되기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

현재 최옥경 씨는 지역 내 다양한 강의를 찾아 들으면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는 일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시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연락하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늘 깨어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다짐처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했던 일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적성을 살려 다양한 직업을 고려 중이라고 해요. 최옥경 씨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로 인해 스스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튼튼한 신중년이 되기 위해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고 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기가 보조하면 스스로 일할 수 있어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들을 보조하는 여러 지원제도 중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직장생활에 더 쉽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 강숙희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왜 필요할까요?

비장애인보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에게는 모니터의 글자를 확대해 주는 확대독서기가 필요할 것이고, 지체장애인에게는 특수작업의자나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테이블 등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장애인들의 근로를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기의 필요성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도 하고, 기기를 사용해 일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일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자존감이나 성취감 또한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기기들의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이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회사에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고용 예정인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할 수 있는데요. 경증장애인은 1인당 1,000만 원까지, 중증장애인과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이를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공단지사로 구비서류와 함께 연중 수시로 신청하면 된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용도와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지원 품목도 매우 많답니다. 크게는 점자프린터 등 정보접근기기, 특수작업의자 등 작업기기, 소리증폭장치 등 의사소통기기, 팔 지지대 등 사무보조기기, 핸드 컨트롤러 등 차량용기기 등이 있죠. 물론 그 세부적인 품목은 훨씬 많고요. 기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노바캠리더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기인데요, 인쇄물의 문자를 판독해 음성으로 읽어준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알리미는 무선 리모컨으로 관리자나 작업자를 호출할 수 있고요.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한 손만 사용 가능한 장애인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판이 배열돼 있어요. 또 욕창 방지와 자세 유지를 위한 공기방석도 있죠.

종류	품목	장애유형
정보 접근기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화면확대 S/W 및 H/W, 음성출력 S/W 및 H/W, 확대독서기, 문서인식 S/W 및 H/W, 대형모니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입력보조장치, 자세보조장치, 특수 S/W	시각·지체·뇌병변장애인
작업 보조기기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경사각 작업테이블,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특수작업의자, 작업물 운송운반장치	지체·뇌병변장애인
의사 소통기기	신호장치,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보완대체 의사소통장치	언어·청각
사무 보조기기	수화기홀더, 팔 지지대, 물건집게, 필기보조도구, 원고홀더	지체·뇌병변장애인
차량용 기기	경련방지 플레이트, 경사로, 고정장치, 도넛형 연료통, 리프트, 벨트류, 사이드서포트, 세컨더리 컨트롤, 우측 방향지시기, 이동시트, 자동문, 자동변속기, 조작력 저감장치, 좌측 액셀페달, 주차브레이크, 크레인, 페달확장, 핸드 컨트롤러, 핸들봉, 확장 스티어링	지체·뇌병변장애인



기기 지원 통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세요

이미 일을 하고 있지만 불편했거나 앞으로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혹은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작업자도 회사도 업무능률을 높이고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꼭 살펴보세요. 작은 기기 하나가 업무의 효율과 작업자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테니까요. 작업 환경을 바꾸면 함께 일할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이 열립니다.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우리 사회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사회적기업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상생과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 보시죠.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부모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만들어진 협동조합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열손가락협동조합)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안양, 의왕지역에서 뇌병변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던 부모들이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부모회가 만들어졌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게 된 것이었죠. 김오례 이사장에 따르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점점 늙어가서 힘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점점 자라요. 이 아이들에게 다른 형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부모들은 어떤 방법을 고려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는데, 당시 안양의 울목아이쿱생협에서 진행한 착한여성기업가 양성과정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고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 성공회대학교 김동준 교수님과 울목아이쿱생협 김정희 이사님이 직접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저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려 주었죠. 아이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협동조합 설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후 2015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받게 됩니다.





도움의 손길에 주력한 활동

열손가락협동조합은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소비자조합원 29명과, 조합과 뜻을 함께 하는 후원자조합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주도했던 홍경숙 상임이사는 처음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복지관에도 있어요. 하지만 복지관은 단기 프로그램 위주죠. 저희는 최종중 중복장애 자녀들이 많아요. 단기간의 돌봄이 아닌 지속적인 돌봄의 고민이 필요했고, 당장에는 급할 때 맡기고 싶어도 아무데나 맡길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후 아이들을 돌보는 방과후 돌봄부터 고려하게 되었죠. 이런 시작이 가능했던 건 3년간 장소를 무상 임대해 주신 최창렬, 김미라님 덕분이었습니다.”

오후 방과후 돌봄으로 시작했던 활동은 2017년 9월 열손가락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주말 돌봄, 여름·겨울 방학 돌봄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돌봄사업에서 수익은 남지 않는 상황이지만, 부모들이 얼마나 이 일을 필요로 하는지 알기에 프로그램을 그만두지는 않을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 찾기

열손가락협동조합 역시 수익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조합이지만,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 아이들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어요. 시를 잘 쓰는 아이도 있죠. 그 둘의 작품을 모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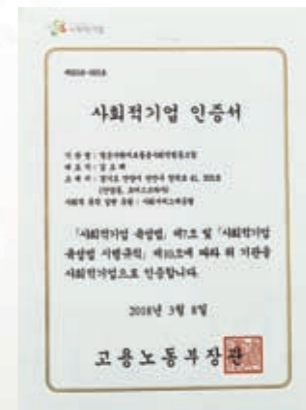
뇌병변장애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멀티동화를 만들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창작 인형극 〈동그란눈 뽀족한눈〉, 〈우리는 친구〉를 개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인형극은 점차 찾는 곳이 많아지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합은 아픔을 지닌 조합원들이 힘이 들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종종 자녀들이 자신이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지원제도 활용 등으로 점차 사업도 개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손가락협동조합의 김오례 이사장은 ‘청년 일자리연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최종중 중복장애인과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경중 장애인들에 비해 모든 게 힘이 들기에 활동보조인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요. 아이들을 돌보기가 점점 힘에 부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영역에서도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부모를 위해 탄생한 열손가락협동조합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열손가락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한결같이’ 돌봄과 자립을 위한 활동 속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서로 힘을 주는 버팀목이 되고, 이웃들과 함께 하여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열손가락협동조합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모두 함께 발맞추어 나가기를 실천하는 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에 있는 선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이에 2018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죠. 모두 함께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 대전선병원의 상생의 이야기를 만나 보시죠.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1966년 설립된 환자 중심의 병원

대전선병원은 1966년 대전 최초의 정형외과 전문의故 선호영 박사가 세운 선정형외과의원이 시작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본원인 대전선병원을 비롯하여 유성선병원, 국제검진센터, 선치과병원 등 4개 병원을 운영하고 암, 척추·관절, 뇌심혈관센터 등 11개 전문센터, 39개 진료과를 포함하여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되었죠. 대전 지역에서는 충남대학교 병원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병원입니다. 외래 환자 1일 3,500여 명, 해외 환자 연간 6,000여 명이 찾는 글로벌 종합병원으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인식을 바꾼 장애인 채용박람회

현재 대전선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1,900여 명입니다. 이 중 장애인 직원은 51명인데요, 병원이라는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의료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대전선병원의 장애인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선병원 인사총무팀 신광성 팀장은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가져다 준 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와 직접 마주해야 하는 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특히 예전 의료분야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적용 제외를 받는 직종이었거든요.”

하지만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적용 제외가 없어지면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권고에 신광성 팀장의 고민도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우연히 참석하게 된 것이 장애인 채용 박람회였습니다.

“박람회 행사장을 가득 메운 장애인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장애인에게 직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기회를 준다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대전선병원은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10억 원의 금액을 투자하여 세탁실을 만들었는데요, 당시 기존 외주업체에서 처리하던 세탁물을 병원 내 세탁시설을 설치해 자체 처리하고 이를 장애인 고용으로 연계시킨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안전장치를 갖춘 산업용 자동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비했어요.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설치하여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 장애인 4명을 포함한 14명의 장애인이 세탁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교육기간을 좀 더 길게 두어 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배려했고 있죠.

더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나아가고 싶어

현재 대전선병원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다 함께 나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유성선병원이 증축 개원을 앞두고 있기에 이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년 장애인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고 채용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결원이 생기거나 새로운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바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광성 팀장은 앞으로도 재단 산하 각 병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장려하고 더욱 많은 인원이 같이 하기를 희망하기도 했는데요, 기업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장애인이 할 일은 더 많아진다는 그의 말 속에 차별 없이 함께 나아가려는 대전선병원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현재 대전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은 총 51명입니다. 이 중 중증 장애인도 9명이 고용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의 직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직종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대전선병원의 특징입니다.

“직접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간호해야 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직종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인사총무팀, 홍보팀, 전산팀, 상담센터, 주차관리, 환경관리, 중앙공급실, 진단검사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다

메가젠임플란트

대구에 위치한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 메가젠임플란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특특히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에 덴탈 업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글 노혜진 사진 김정호

MEGA'GEN

Total Healthcare Innovator For Lifetime Smiles



치과의사가 2002년 설립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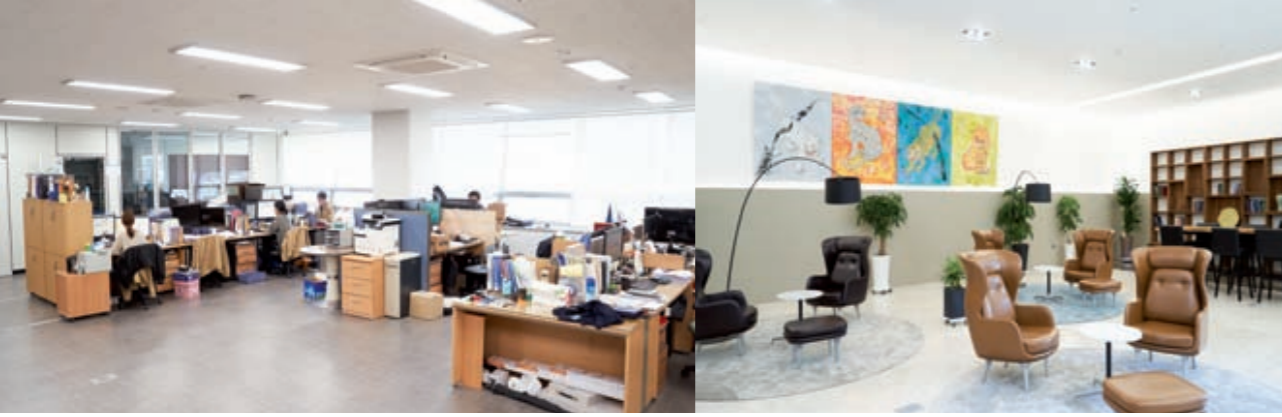
메가젠임플란트의 박광범 대표이사는 치과의사입니다. 현재도 대구미르치과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죠. 박광범 대표이사는 이미 80년대부터 임플란트가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국내에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80년대 후반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이 많았습니다.”

박광범 대표이사는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의 기술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디테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당시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스타디그룹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점점 보완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깊게 고민한 박광범 대표이사는 우리 환경에 맞는 치과용 임플란트 기구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2002년 메가젠 임플란트를 설립합니다.

“설립 당시 주주가 70명이었어요. 대부분이 치과의사였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계속 남아 계시면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품평도 해 주고 있죠.”

이러한 꼼꼼한 리뷰와 아이디어가 있기에 메가젠임플란트의 기술력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경산에 있던 본사를 대구로 옮기기도 했죠.



사회적 약자 채용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한 분들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이러한 박광범 대표이사의 생각은 채용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사회적 약자 채용에 적극 나서 장애인을 비롯하여 중장년층 등 많은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생각과 인성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회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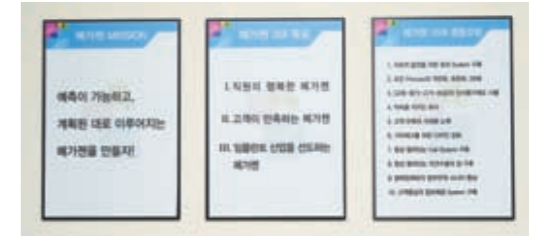
일할 맛 나는 직장에서 나오는 품질 좋은 제품

박광범 대표이사가 일을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팀워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하면서 팀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여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팀워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환경이 좋아야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한 복지를 찾아서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메가젠임플란트는 현재 신문고 설치로 대표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비롯해, 탄력 근무제 시행, 출퇴근 시간 조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도 시행, 동호회 지원, 기숙사 제공, 아침·점심·저녁 제공, 계절별 간식 제공 등 다양한 복지를 실시합니다.

“주 52시간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앞당겨서 제도를 시행하고 야근을 없애기 위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현재는 야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상품권을 주어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게 서로 선물하게 하고, 앞으로는 직원들끼리 칭찬하기와 감사하기 같은 재미있게 일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메가젠임플란트 역시 생산라인에서 야근을 안 할 경우 납기를 맞출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 스스로 일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이 15% 이상 상승하고 기계 효율도 이전에는 80%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9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보장된 품질로 승부하는 기업

현재 메가젠임플란트는 전 세계 90여개 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해외 매출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객 또한 해외 치과의사들이 많죠.
 “저희 메가젠임플란트가 대구로 이전을 하면서 새롭게 환경을 정비하였으니 이제 직원들과 함께 더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박광범 대표이사의 큰 꿈은 세계 1위의 임플란트 회사로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가격보다는 최고의 퀄리티로 믿을 만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직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발맞추어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메가젠임플란트의 큰 미래가 기대되는 까닭입니다.



노사 동반 성장이 기업 성장까지 이끈다

메트릭스

20년간 꾸준히 매출을 상승시켜온 리서치 업체, 메트릭스는 지난해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인증 받으며 내부 직원들의 만족 성과까지 이루어 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저력이 확실한 기업. 작지만 강한 메트릭스의 성장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글 강속희 사진 이지수



매년 10% 성장률은 여전히 진행 중

1999년 인터넷 접속률 조사를 시작으로 문을 연 메트릭스는 공공·사회 조사, 마케팅 조사, 정치 여론은 물론 빅데이터까지 다루고 있는 리서치 전문 업체입니다. 이들은 2009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곤 큰 부침 없이 성실히 성장가도를 달리며 매출 4억 원에서 현재 16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정규직 70여 명으로 초창기에 비하면 무려 20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고요.

메트릭스는 주요 업무 중에서도 공공·사회 조사를 특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대한적십자사의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 확인 대비 전수 수요 조사',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 고객만족도 및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 고용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시 등 여러 공공기관과 오랫동안 중요한 통계자료로 쓰이는 굵직한 조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이들은 안다

리서치 업체가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은 단연 신뢰도 아닐까요? 역시나 메트릭스에선 자신들의 강점으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설문을 통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칩니다. 검증부서에서 다시 한번 응답자들에게 연락해 실제 조사 여부를 묻고, 결과가 다를 경우 즉각 폐기해버리죠. 응답자가 100여 명 수준이 아니라 천 단위로 넘어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님에도, 검증체계를 더 철저히 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체 조사의 비율이 높아 가까이에서 설문 환경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응답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드는 방식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업체라고 조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만큼 근거와 통찰까지 두루 갖춰야 하기에 사람 자체가 하는 역할의 중요도는 매우 큰 편입니다. 일관성 있는 시각을 유지하고, 기존 조사와의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으려면 직원들이 장기근속하면서 그 히스토리를 모두 꿰뚫고 있어야 하죠. 이에 메트릭스는 직원들을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해 복지에 크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나선다, 대표도 특별할 건 없다

기본적인 복지는 물론 3년 차 이상 직원에겐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학위 취득도 도와주며, 연차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 보니 실제 육아휴직률도 높고, 복귀율도 90%에 육박하며, 이를 회사에서 먼저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죠. 여기에 3년 주기로 내부 직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실제 만족도는 어떠한지 파악하고 더 원하는 새로운 의견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사실 실제 복지 개선은 3년 주기가 아닌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사내 메신저를 통해 언제라도 원하는 점이 있으면 경영지원부서에 바로 제안할 수 있고, 심지어 대표에게도 바로 건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문화 자체가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모니터를 더 큰 사이즈로 교체하거나, 더 편안한 의자로 바꾸거나, 다과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사내 동호회를 지원하는 일 등은 직원들이 직접 의견을 낸 것으로 현재도 잘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것을 협의한다

메트릭스에선 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해 지시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의사 결정이라도 노사협의회를 거쳐 진행하니까요. 메트릭스 노사협의회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요, 사측 3명과 노측 3명이 좌담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덕분인지 2017년에 수상한 '노사문화 우수 기업' 타이틀은 2005년부터 벌써 3번째입니다.

최근 비즈니스 업계의 화두가 주 52시간 근무였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때도 이들은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주간 근무시간이 이미 48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노사발전위원회를 통해 컨설팅을 받고 직원들이 일·생활 균형은 더욱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이번 12월부터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메트릭스가 이런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구축하게 된 건 내부 고객만족이 회사의 성과와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사가 동반 성장하는 일은 메트릭스에는 당연한 일인 거죠.

메트릭스는 최근 결정해야 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직원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 내부 리서치를 통해 위치, 시설, 공간 등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기업문화를 만들고 일방적 배려가 아닌 소통하며 이루어 낸 복지를 만들어 가는 이들. 충분한 내부 고객만족을 이루고 있기에 3년 안에 200억 원 돌파의 목표도 반드시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전에 노사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이 먼저겠지만요.



지게차 재해 예방은 이렇게 합시다!

지게차는 사고사망 재해의 원인 중 위험도가 1순위인 기계·설비입니다. 한 해 평균 1,144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기에 재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게차 재해 예방 안전대책

- 1 안전통로 확보**
전용 통로 확보, 반사경 설치, 통로 구분
- 2 안전장치 설치**
안전벨트 부착, 전조등 및 후미등, 후사경, 헤드가드 등
- 3 화물 적재 안전성 확보**
적재하중 초과 적재 금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 충분한 강도의 팔레트 또는 스키드 사용

지게차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3원칙



- 1** 운전은 자격을 가진 지정된 사람만 할 것
- 2**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후진 운전 시에는 후방 확인 필수
- 3** 운전자는 운전 시 좌석 안전띠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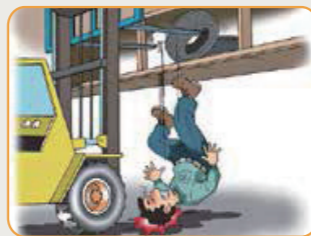
지게차 주요 위험 요인

- 1** 운전자 시야 불량, 운전 미숙, 과속
부딪힘 위험



- 2** 경사면 등에서 급선회 시 전도되는 지게차
깔림 위험

- 3** 화물 과다 적재, 편하중, 지면 요철로 떨어지는 화물
맞음 위험



- 4**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고소 작업
떨어지는 위험

- 4** 지게차 안전 운행
운전자 시야 확보, 포크에 화물 매달고 주행(급선회) 금지, 운행구간별 제한속도 지정 및 표지판 부착
- 5** 주용도 외 사용 금지
포크에 작업자 탑승시켜 고소작업 금지,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당기거나 미는 작업 금지
- 6** 기타
지게차 전담관리자 지정 및 시동키 관리, 무자격자 운전 금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Q 한 달 전 사직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의 예고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도록 한 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직 의사에 대한 예고 의무는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일까요?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와 관련하여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단, 월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임금지급기를 지난 다음 임금지급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한 달 전에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표하지 않고 갑자기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한다면 그 시점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직의 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정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니 노사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퇴직금 불이익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년 이상 근로한 퇴직금 발생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기간이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회사는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저에게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고용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의 고용보험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을 원천공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원천징수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체납된 고용보험료에 대해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였다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만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근로자는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직일 전 18개월 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사사유가 최종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만일,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취득신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명으로 입금된 임금입금명세, 근로계약서, 사업장 입·퇴사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체납하였을 경우

만일, 사업주가 최초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근로자부담금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사업주가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인사 발언에서 인사발언에서 여성 고용률은 지속 개선(57.5%, 전년동월대비 0.1% 상승)되고 있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호조(59.6%, 2000년 53.1% 이후 최고 수준)이나,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에 비해서 낮고, 경력단절 여성도 183만만 1,000명에 달하여 여성의 일자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애로와 요구를 기탄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정부가 여성 일자리 개선을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여성 일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단체 담당자 및 근로자,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근로조건 처우 개선, 중소기업 정부 지원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대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보건·사회복지, 제조, 교육서비스 등 업종별 종사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1월 20일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여성 업종별 단체 담당자 및 근로자, 여성 다수 고용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운영 등 노동시간을 줄여나간 노력들을 공유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정착을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여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으로 만족하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건의하였고, 경영진들의 경우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인과 근로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업 노사 간담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근로자 6명과 경영진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업 노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S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국민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전체의 체계를 새로이 개편하였다.

특히 입법예고(2018. 2. 9) 이후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해 법의 목적을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으로 확대하였다.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30 / 산재예방정책과 김대원 사무관(044-202-7697)

W

E

Z

L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 건설현장 집중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취약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질식,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의 겨울철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 감독한다.

감독 전 11월 15일~11월 18일까지 사업장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율개선을 이끌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11월 19일~12월 7일까지 불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내실 있는 사업장 자체 점검을 위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사고 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하고, 자체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 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 및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2018.11.05 / 산업안전과 최재훈 사무관(044-202-7724)

W

O

M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10만 개 창출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재갑 장관 취임 후 열리는 첫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로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노사 대표 및 고용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최근 고용상황, 구체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동향 및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이전에는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에만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적기업,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폭이 넓어지고 '22년까지 가치있는 일자리 10만 개 신규 창출이 기대된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1.09 / 고용정책총괄과 이창주 사무관(044-202-7212)

노동 현안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11월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구조 개혁을 위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업종별 대표 등 약 2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민간 투자 감소, 美中 통상 마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영계 대표로 새로 참여하게 된 만큼,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해 나간다면 어려운 경제 여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에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개선 및 차등적용,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살펴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겠다. 앞으로 중소기업계와 더 자주 만나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1.16 / 노사협력정책과 박대정 사무관(044-202-7635)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산재보험 보상 확대

2018 개정된
산재보험  가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보험 처리하는 것

달라진 산재보험 가지

소규모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 신청 가능

- 기존** -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또는 공사연면적 100㎡ 이하 사업장 업무 사고 불인정
-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업무 중 사고 불인정
- 개정** -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또는 공사연면적 100㎡ 이하 사업장 업무 사고 산재 인정
-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업무 중 사고 산재 인정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범위 확대

- 기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중 발생한 사고만 인정
- 개정**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수단과 상관없이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단 일탈, 중단의 경우는 제외)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기존** 직업계고 한정
- 개정** 4년제 및 전문대학



행복을 나누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례 1



사례 2



공과 사를 깐깐하게 따졌던 인물 최부, 송흠

최부(崔簿)와 송흠(宋欽)은 모두 연산군 때 사람이다. 송흠은 전남 영광 출신이며 성종 12년 사마시(진사(進士)를 뽑는 과거의 한 종류. 진사시라고도 하였음)에 합격한 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왕명을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보고하던 기관)에 들어갔다. 하지만 연산군의 학정을 옳지 않게 여겨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에 힘쓰며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다.

자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의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최부와 송흠이 함께 홍문관에서 일했을 때다. 정4품 응교(應敎)인 최부는 나주, 정9품 정자(正子)인 송흠은 영광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벼슬의 차이는 있었으나 고향길이 가까웠으므로 둘이 사이좋게 휴가를 함께 가게 되었다. 하루는 송흠이 4, 5리 길인 최부의 집을 찾아갔다. 점심까지 잘 얻어 먹었는데 최부가 뜬금없이 물었다.

“자네, 무슨 말을 타고 왔는가?”

“역마(驛馬)를 타고 왔지요.”

“역마는 자네가 서울서 내려올 때 집까지만 타라고 나라에서 내 준 말이 아니던가? 내 집까지는 분명 자네의 개인적인 사행(私行)길인데, 어찌 역마를 타고 올 수 있던 말인가?”

점심밥까지 잘 얻어먹고 느닷없이 힐책을 받자 송흠은 화로라도 뒤집어쓴 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차마 역마를 타지는 못하고 집까지 끌고 터덜터덜 걸어서 돌아갔다.

휴가가 끝나고 며칠 안 돼서 송흠은 홍문관을 떠나게 되었다. 떠나면서 최부를 찾아가 정중히 사과하였다. 최부가 송흠에게 타일렀다.

“자네는 나이가 젊네. 후에는 조심해야 할 것일세.”

친구의 가르침으로 일생을 청렴하게 산 송흠

이러한 일을 겪고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커서인지 송흠은 일생을 청렴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는 연산군이 중종반정에 의해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다시 출사하여 관료로서 승승장구하게 된다. 보성, 순천, 여산 등 전라도의 여러 수령을 역임하고 나주, 광주 등의 목사나 부사도 지냈으며 담양 부사, 전라감사, 한성부좌윤(조선 때 한성부의 종2품의 벼슬), 이조와 병조 판서 자리에 오르고 우참찬과 판중추부사(중추부의 종1품 벼슬) 등의 고관대작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누렸던 지위에 비하여 그의 삶은 청빈하기가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 송흠이 매번 지방에 수령으로 부임할 때에 거느린 말(馬)이 겨우 세 필밖에 안 되었다고 한다. 공이 타는 말이 한 필이고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각각 한 필씩 탔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그의 검소한 행차를 일컬어 ‘삼마태수(三馬太守)’라고 불렀다. 또한 노모를 봉양하는 것 외에 처자와 얼마 안 되는 노복들은 겨우 굶주리고 추운 것을 면하는 정도였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오는 날에는 집 안에 곡식이 한 톨도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청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훗날 그는 인종에 의해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겨울철 어르신들 건강 주의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동상이나 골절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쉽다. 특히 나이가 들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느린 고령자들은 사고에 더욱 취약하다.

글 편집실 자료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0대 이상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폐렴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기며 노인의 경우 20~20%는 증상이 없어 뒤늦게야 폐렴 진단을 받기도 한다. 폐렴은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사망 원인 중 70세 이상 사망 원인 5위 이내인 것으로 분석되어 고령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나이가 들면서 폐의 기능 및 면역력 저하로 쉽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며, 가래·기침·열 발생이 적게 나타나면서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감기로 생각했으나 높은 열이 발생하고, 화농성 가래 및 호흡 곤란,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폐렴 여부를 진단하고, 가래나 혈액검사로 원인균을 찾아야 한다.

고령자라면 주의해야 할 골절

젊은층에 비해 뼈가 약한 노인들은 신체의 유연성 및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가벼운 낙상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운동량이 부족해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하체 근육이 감소하면서 경미한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눈과 비 등으로 인해 도로에 빙판이 생기는 겨울철에는 외출 시 골절 예방을 위해 외출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보온에 신경 써서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키는 것이 좋다.



겨울철 고령자 건강 예방 수칙

- ❶ 기상 정보를 항상 확인하여 날이 너무 추우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한다.
- ❷ 외출 시에는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다.
- ❸ 실내에는 적정 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 ❹ 무리한 신체 활동은 금한다.
- ❺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보폭은 좁게 하고 필요 시에는 지팡이를 이용한다.
- ❻ 술은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 ❼ 독감 예방 접종은 미리 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 입맛 돋우는

꼬막

소설 <태백산맥>에 벌교 꼬막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면서 꼬막은 겨울철 남도 음식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날이 추워지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꼬막은 겨울 입맛을 깨우는 별미로 이름이 높는데, 영양소도 풍부하다.

정리 편집실 도움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신석기시대부터 먹었던 꼬막

한반도에서 꼬막을 먹었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신석기시대 패총에는 꼬막껍질이 빠짐없이 발견되었으며 각종 기록에도 꼬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魚譜)라 할 수 있는 김려 선생의 <우해어보>에는 이 골의 모양새가 기왓골을 닮았다 하여 와농자(瓦籠子)라 적었으며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고막조개(庫莫蛤)를 감(蚌), 와룡자(瓦籠子), 복로(伏老), 강요주(江瑤珠), 괴륙(魁陸) 같은 한자 이름과 속명을 여럿 소개하면서 '맛이 달다.'고 칭하였다. 조선 후기 학자 이만영이 엮은 <재물보(才物譜)>에도 '호남 사람들이 고막이라 칭한다.'라며 꼬막을 소개하고 있다. 꼬막이라는 명칭은 전라도에서 주로 쓰이며 경상도에서는 강요(江瑤), 서해안에서는 소합(小蛤), 경기도에서는 안다미조개라고 불렀다.

영양분이 풍부한 식자재

꼬막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는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주고 간에 남아 있는 독성을 해독시킨다. 꼬막에 들어 있는 필수아미노산은 식욕을 촉진시키며 철분과 비타민 성분은 빈혈을 예방해 주고 면역력을 높여 준다. 특히 꼬막의 철분은 100g에 약 7.9mg이 들어 있는데 일일 권장량의 50%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단백질, 비타민, 칼슘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다.

꼬막을 고를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고 윤기가 나며 겉의 물결무늬가 선명한 것이 좋다. 살짝 흔들었을 때 입이 굳게 닫혀 있고 살점은 붉은색을 띠고 알이 큰 것이 좋은 것이다.

맛있는 밥반찬, 꼬막무침



재료 : 꼬막 1kg(껍질 포함), 진간장 5큰술, 고춧가루 3큰술, 대파 2줄기,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1큰술, 소금 2큰술(해감용)

만드는 법

- ① 찬물에 꼬막을 바락바락 3~4번 씻는다.
- ② 대야에 물을 담고 소금 2큰술을 넣어 까만 봉지를 씌운 뒤 1~2시간 동안 두어 해감한다.
- ③ 해감한 꼬막을 찬물에 행군다.
- ④ 큰 냄비에 물을 올려 물이 끓으면 꼬막을 넣고 데친다. 이때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면서 데치면 살이 찢어지지 않는다.
- ⑤ 데친 꼬막을 한 번 행구고 한쪽 껍질을 벗긴다.
- ⑥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어 껍질 벗긴 꼬막 위에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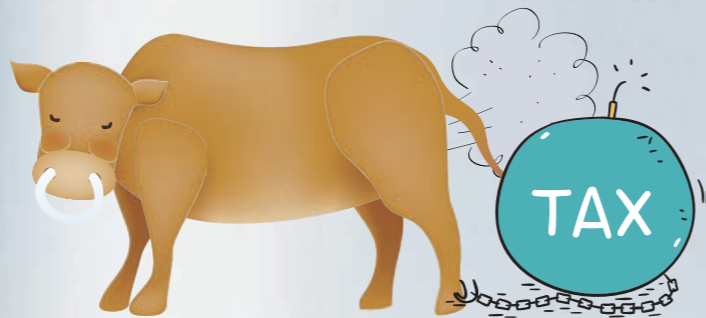
상식을 넓히는 소소한 잡학 모음

세상은 넓고 지식은 넘쳐난다.
그 가운데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있지만,
알면 좋고 몰라도 무방한 지식도 많다.
필수는 아니어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모았다.

글 편집실

세계의 별난 세금

네덜란드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가 없는 대신 주행 부과세를 부과한다. 베네수엘라는 2014년부터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호흡세(공조설비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은 개를 키우면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의 크기와 견종에 따라 다른데 독일의 경우 대략 한 마리에 1년간 100유로 정도이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소를 기르는 농가에 소가 뛰는 방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 최초의 자장면 판매

자장면이 언제, 누구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다. 하지만 자장면이라는 이름을 달고 처음으로 음식을 팔기 시작한 곳은 1905년 개업한 공화춘이다. 일제시대 청요리로 크게 이름을 날린 고급 요릿집으로 현재는 자취만 남아 있다.

이정표의 남은 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일반 국도나 지방도로는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한다. 고속도로는 나들목을 기준으로 관광지는 주차장이나 명소를 기준으로 하고 고속버스나 철도는 출발·도착 터미널 또는 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정표의 남은 거리를 계산한다.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날아가 보자 한국민속촌



용인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국민속촌은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풍습과 생활양식을 재현하였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를 걷고 있는 착각을 주는 이곳은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이름을 알린 곳이다.

글 편집실 사진 노혜진



1974년 개관한 야외민속박물관
1974년 개관한 한국민속촌은 1980년대 한국 관광 필수 코스로 소개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각 지방에서 이건 및 복원한 실물 가옥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계절 변화에 따라 생활 문화를 재현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조선시대 타임슬립, 사극 드라마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즐거운 놀이공간으로 재탄생함으로써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가득한 즐거운 곳
특히 12월에는 전통방식 그대로 진행되는 세시행사와 초가집에 새 지붕을 얹어 주는 이영 잇기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아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도록 조선시대 사람으로 분장한 캐릭터들이 펼치는 재미있는 공연을 비롯하여 사극 체험, 사극 의상 체험이 재미를 더해 준다. 특히 나룻배, 승마와 같은 전통 체험도 할 수 있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e-store 36.5+ 사회적경제 구성원과 동행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 플랫폼입니다.



함께 나누는 e-store 36.5+

O / P / E / N

2018년 12월 3일 **오픈**

www.sepp.or.kr



온라인 커머스 사회적경제 상품물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상품 수요자들을 연결합니다.



공공시장 진출 공공조달 정보 제공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로지원 정보 관리 판로지원 사업

원스톱 판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2,700만원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2018년 3월15일~2021년 12월 31일)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사행산업, 유흥업, 배팅업 등 일부업종 제외
- 공공기관, 정부출현·출자기관, 인건비 정부지원기업 제외

지원내용

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고용, 30~99인 : 2명 이상 고용, 100인 이상 : 3명 이상 고용
② 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수준 청년 신규채용 **1인당 年 900만원***, **3년간 지원**

* 고용위기지역(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500만원 추가(인당 年 1,4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 고용센터

시행시기

2018년 6월 1일부터 * 2018년 3월 15일 취업한 청년부터 제도개선사항 적용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월간 <내일>이 함께 합니다.

웹진으로 <내일>을 만나 보세요

월간 <내일>을 웹진으로 만나 보세요. 월간 <내일> 홈페이지(<http://labor21.com/>)에 접속하면 지난 호부터 최신 호까지 다양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월간 <내일>은 독자들이 만들어 갑니다

월간 <내일>은 독자들과 함께 합니다. 알고 싶은 정책, 좋았던 기사, 기타 개선해야 하는 점 등 자유로운 의견을 보내 주세요.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월간 <내일>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11월호 퀴즈 정답 P-Tech

11월호 정답자

- | | | |
|-------------|-------------|-------------|
| 강구권(대구 달서구) | 이성훈(대전 서구) | 조상희(경기 고양시) |
| 김명화(춘천 사농동) | 이종민(서울 서초구) | 차선옥(부산 동구) |
| 김은미(대구 수성구) | 정경석(대전 중구) | |
| 서인수(강원 원주시) | 정창재(경기 용인) | |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1만 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12월호 퀴즈

청년 정책·공간 정보 및 통합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퀴즈 정답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을 엽서에 적어,

매월 20일까지 <내일>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월간 <내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엽서에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하여 보내 주시거나 **월간 내일 웹진** (<http://www.labor21.com>)에서 신청해 주세요. 익월부터 반영되어 소식지를 보내 드립니다.



www.labor21.com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월간 <내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을 만나 보세요

일을 통한 행복을 알려 주는 고용노동부의 소식지 월간 <내일>
월간 <내일>에는 도움이 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직원과 상생하며 성장해 나가는 기업,
알고 싶은 상식 등 꼭 필요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내일

my Work, my Tomorrow 2018. 12. vol.524

보내는사람

성명 _____ (남 여)

주소 _____ 휴대폰(-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7.01.25 - 2019.01.24
서울강남우체국 제41787호

내일
my Work, my Tomorrow 2018.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3길 8 (신사동, 산도빌딩 5층)
하나로애드컴 월간 <내일> 편집실 앞

0 6 0 2 6

< Campaign Report >

1. 귀하의 성별은?

- 남자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 10대
 20 · 30대
 40 · 50대
 60대 이상

3.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군은?

- 유통 · 서비스업
 제조업
 의료 · 제약
 교육업
 건설업
 IT통신
 미디어디자인
 금융업

4. 귀하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섹션은?

- 청년 정책
 여성 · 중장년 이야기
 기타 고용노동정책
 문화예술 정보

5. 귀하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6. 보충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업종 다양화
 실패 사례
 관련 제도
 트렌드사업 정보

월간 내일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
에 표시해 주세요

● 12월호 독자퀴즈의 정답을 적어 주세요.

●● 이번 호에서 인상 깊었던 기사와 그 이유를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다음 호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이나 월간 <내일>에 바라는 점을 적어 주세요.

이곳에 풀을 칠해 주세요